

# 新羅人の 世系認識

李 鍾 旭

- |               |              |
|---------------|--------------|
| I. 머리말        | IV. 세계인식의 구조 |
| II. 세계인식의 확인  | V. 세계인식의 특성  |
| III. 세계인식의 예들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신라사회가 골품신분에 의해 편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엄격한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世系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친족집단의 성원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와 같은 성원권의 주장은 골품제사회의 신분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인의 세계인식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신라인의 세계파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 세계파악의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신라인의 세계인식의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나아가 신라인의 세계인식의 몇가지 특성을 헤아려 보기로 한다. 끝으로 신라인의 세계인식의 한계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본고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신라인의 세계인식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신라친족체제의 원리도 어느정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sup>1)</sup>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은 앞

1) 신라 친족체제의 원리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부계, 모계 및 기타의 여러 가지가 발표된 바 있다. 본고는 친족체제의 원리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신라인의 세계인식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이다.

으로 보충·수정할 것을 기약하며, 先學의 질정을 기다리는 바이다.

## II. 세계인식의 확인

『三國史記』·『三國遺事』 및 신라시대의 金石文 등 자료에는 신라인의 출신에 대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한 출신표시는 대체로 출신지역, 신분, 父祖를 포함한 世系에 대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 世系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음 몇가지 사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A (1)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浚 祖宗其蘇判 考貞茹波珍浚 皆以世家爲將相……(『三國史記』 44, 金陽傳)

(2) 斯多舍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 父仇梨知級浚 本高門華胄 (『三國史記』 44, 斯多舍傳)

위의 사료는 두명의 신라왕족출신 인물에 대한 것이다. 그중 金陽에 대해서는 그 父·祖·曾祖의 이름과 관등이 나오고 있으며, 斯多舍은 그 父의 이름과 관등이 나와 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金陽이 太宗武烈王의 9세손이라는 대목과 斯多舍이 奈勿王의 7세손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다음의 사료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이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볼 수 있다.

A (3)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脫解尼師今爲干 (『三國史記』 44, 居道傳)

(4) 張保臯 <sup>羅紀作</sup> <sub>呂</sub> <sup>年或</sup> <sub>作連</sub> 鄭年 皆新羅人 但不知 鄉邑父祖 (『三國史記』 44, 張保臯傳)

(5) 崔致遠 字孤雲 <sup>或云</sup> <sub>海雲</sub> 王京沙梁部人也 史傳泯滅 不知其世系 (『三國史記』 46, 崔致遠傳)

(6) 裂起 史失族姓 (『三國史記』 47, 裂起傳)

(7) 丕寧子 不知鄉邑族姓 (『三國史記』 47, 丕寧子傳)

(8) 聖覺 青州人 史失其氏族 (『三國史記』 48, 聖覺傳)

(9) 金生 父母微 不知其世系 (『三國史記』 48, 金生傳)

(10) 率居 新羅人 所出微 故不記其族系 (『三國史記』 48, 率居傳)

위의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族姓(3·6·7), 氏族(8), 族系(10), 父·祖(4), 世系(5·9)라는 용어이다. 『三國史記』의 편찬이 고려시대에 이루어졌기에 그와 같은 용어의 사용시기가 과연 언제였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世系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우선 다루기로 한다. 그중 族姓을 모르는 居道·裂起·丕寧子는 그 姓과 父祖의 계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族姓의 族은 그러한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氏族을 모르는 聖覺도 姓과 父·祖의 계통을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그에 비해 그 姓이 나와 있는 崔致遠·金生은 그 父·祖의 계통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에 世系는 父·祖에 대한 계통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世系”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金陽·斯多舍의 예에 나오고 있듯, 단순히 父·祖 뿐만아니라 그 위의 조상의 계통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신라인의 世系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라인의 世系認識은 본고의 작업을 통하여 해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라인의 氏族은 父·祖를 통한 父系氏族이었고, 자연 신라시대 세계파악도 父系氏族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골품제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가 존재하였던 신라에서 이같은 世系の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신분이 출생에 의해 결정지워지고 또 그 신분에 따라 여러가지 특권과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인의 世系認識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회체제 이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하리라 본다.

### Ⅲ. 세계인식의 예들

이제 신라 사회체제 이해의 한 열쇠가 되는 世系認識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關智를 시조로 하는 인물들을 주목하기로 한다.

B (1) 關智生勢漢 漢生阿都 都生首留 留生郁部 部生俱道一作仇刀 道生未鄒 鄒卽王位 新羅金氏自關智始 (『三國遺事』, 金關智)

(2) 第十三未鄒尼師今立 其先關智 出於雞林 脫解王得之 養於宮中後拜爲大輔 關智生勢漢 勢漢生阿道阿道 生首留首留 生郁甫 郁甫生仇道 仇道則味鄒之考也 沾解無子國人立味鄒 此金氏有國之始也 (『三國史記』 2, 味鄒尼師今)

(3) 第十三未鄒尼叱今一作未祖末古 金關智七世孫 赫世紫纓 仍有聖德 受禪于理解 始登王位今俗稱王之陵爲始祖堂 蓋以金氏始登王位故 後代金氏諸王皆 以未鄒爲始祖宜矣 (『三國遺事』 1, 未鄒王)

(4) 實聖尼師今立 關智裔孫 大西知伊淦之子 (『三國遺事』 3, 實聖尼師今 즉 위조)

위의 사료 (1)과 (2)에는 신라 金氏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關智에서 味鄒王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나와 있다. 그리고 味鄒(3)와 實聖(4)이 왕위에 오를 때 그 가장 위의 조상으로 關智를 들고 있다. 여기서 金氏姓을 가진 집단의 시조가 된 關智에 대한 탄생 신화(설화)를 주목할 수 있다. 그 같은 탄생신화는

史論曰 新羅朴氏·昔氏 皆自卵生 金氏從天入金櫃而降 或云乘金車 此尤詭恠不可信 然世俗相信爲實事 (『三國遺事』 2, 金傳大王)

라는 기록에서처럼 朴氏·昔氏 시조탄생 신화와 함께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世俗에서 實事로 서로 전했다고 한다. 결국 關智를 시조로 하는 金氏集團은 시조신화를 갖고 있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조신화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왔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金氏集團에는 그 시조인 關智의에도 중요한 인물들이 더 찾아진

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주목하기로 한다.

C (1) 至第三十六 惠恭王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並親廟二爲五廟(『三國史記』 32, 祭祀)

(2) ①…紹太祖之基 纂承王位…是以帝王建號莫不修己 以安百姓 然除歷數當躬仰(眞興王巡狩碑 磨雲嶺碑)

② △△十五代祖星漢王 降質圓穹 誕靈仙岳…(新羅文武王陵碑, 『朝鮮金石總覽』 上, p. 109)

③…△太祖漢王 啓千齡之聖…(新羅金仁問碑, 『韓國金石遺文』, p. 66)

④ 七年 夏四月…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其 寤寐憂動 未遑寧處 率頌宗廟 護持…謹遣使某官某 奉陳不腆之物…(『三國史記』 8, 神文王 8 年)

⑤ i) 太祖星漢 ii) 廿四代孫(興德王陵碑斷石, 『韓國金石遺文』, p. 462)

⑥ 大師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實 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慮多難 偶隨萍梗流落熊川 父章深受雲泉 田寓富城之野(廣照寺 眞澈大師 寶月乘空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 126)

⑦ △△運 俗姓金氏 雞林人也 其先降自 聖韓與於郇勿 本枝百世 貽厥嘉猷 大父瑠珞 累官至本國執事侍郎 父確宗歷任至本國司兵員外 俱揚祖德 古紹家聲(毗盧庵 眞空大師普法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pp. 13. ~136)

위의 기록 중에는 金姓始祖라고 하는 味鄒王이 나온다(1).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 金姓의 시조는 關智였다. 따라서 味鄒는 金姓을 가진 왕의 시조로 생각하여 좋을 것 같다. 한편 사료 (2)에는 太祖(①)·星漢王(②)·太祖漢王(③)·太祖星漢(⑤)·星韓(⑥)·聖韓(⑦) 등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명칭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太祖星漢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미 太祖星漢이 바로 13대 味鄒王이라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sup>2)</sup> 여기서 신라의 김씨집단 중 味鄒王 즉 太祖星漢을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살아 있던 사람 또는 사건의 중심인물을 기준으로 그가 누구의 후손인가 또는 누구를 조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된다. 이는 신라인의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역

2) 拙著,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1980, pp. 135~137.

사적 사실이 된다.

한편 奈勿王의 후손으로 기록된 인물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자료를 통해 보면 奈勿王의 子인 訥祗麻立干<sup>3)</sup>, 曾孫인 智證麻立干<sup>4)</sup>, 4세손인 異斯夫<sup>5)</sup>, 5세손인 居柒夫<sup>6)</sup>, 7세손인 斯多舍<sup>7)</sup>, 8세손인 金歆運<sup>8)</sup>, 10세손인 宣德王<sup>9)</sup>, 12세손인 元聖王<sup>10)</sup>, 13세손인 叔明<sup>11)</sup>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신라인들은 그들의 세계를 파악하는데 奈勿王과 같이 신라 역사상 중요한 인물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奈勿王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벌어지고 있음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김씨집단의 성원으로 보다 후대의 사람들의 世系の 출발점이 되는 인물들이 더 있다. 그들 중 주목되는 인물은 智證王<sup>12)</sup>, 眞智王, 太宗武烈王, 元聖王, 神武王, 文聖王 등이다. 이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위에 열거한 인물들이 일정 家系의 祖가 되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家系祖와 기록당사자 사이의 세대수에 따라 그 가계의 규모나 가계의 기능이 달랐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신라인 중에는 關智를 시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의 후손인 味鄒王(太祖星漢)·奈勿·智證·眞智·武烈王·元聖王 등을 世系の 기준점이 되는 祖로 삼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sup>13)</sup> 그중 關智는 味鄒王의 世系の 처음에 나온 외에 實聖王의 世系の 기준점으로 된 후 기록에 나오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신라중고시대에 활약하

- 3) 『三國史記』 3, 訥祗麻立干 즉위조.
- 4) 『三國史記』 4, 智證麻立干 즉위조.
- 5) 『三國史記』 44, 列傳 4, 異斯夫조.
- 6) 『三國史記』 44, 列傳 4, 居柒夫조.
- 7) 『三國史記』 44, 列傳 4, 斯多舍조.
- 8) 『三國史記』 47, 列傳 7, 金歆運조.
- 9) 『三國史記』 9, 宣德王 즉위조.
- 10) 『三國史記』 10, 元聖王 즉위조.
- 11) 『三國史記』 10, 哀莊王 6년.
- 12) 『三國史記』 45, 列傳 5, 金后稷조.
- 13) 拙著, 앞의 책, 1980, pp. 135~143.

던 인물들의 世系の 기준으로는 奈勿王이 등장하였다. 奈勿王은 그후 신라하대를 연 宣德王·元聖王의 조상을 지칭할 때 다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신라하대에는 太宗武烈王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 열거한 김씨집단의 인물들의 활동시기와 그 내용과도 관계가 있다.

關智를 시조로 하는 집단의 성원들 중 眞興王이 처음으로 金姓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언제인가부터 關智의 후손들이 金姓을 칭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 關智의 후손집단을 金氏族 또는 金氏集團이라 칭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金氏姓을 사용한 것을 뜻하지는 않음을 밝혀두기로 한다. 여하튼 김씨집단 성원들의 세계의 祖가 되었던 인물들이 가지는 의미를 잠시 생각하기로 한다. 알지는 김씨집단의 시조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만 그 기준점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후손집단의 규모도 커지고 또 그안의 모든 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 후손들에 의하여 世系の 祖로 되었다. 그중 味鄒王은 김씨로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기에 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奈勿王은 昔氏王時代가 끝난후 김씨왕시대를 연 인물이기에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智證王은 奈勿王 직계의 왕위계승이 끝난 후 그 직계가 왕위를 계승하였기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眞智王은 사료 C(2)④에 나오듯 神文王대에 祖廟에서 지낸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후손들 중 太宗武烈王에서 惠恭王까지 왕위를 계승했기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太宗武烈王은 삼국통일을 한 공이 크고 진골왕시대를 열었던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sup>14)</sup> 따라서 후대의 인물들이 그와같은 인물들을 자기 世系の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신라인들은 그들과 世系상 가까운 위치에 있던 주요인물을 그 世系の 祖로 삼았음을 알 수 있

14) 拙著, 앞의 책, 1980, p. 143.

다. 이같은 世系에 있어 기록 당사자에서 世系の 祖까지의 관계는 직계로 연결된 것으로 단선적인 세계 파악이 된다.

이러한 직계 단선적인 世系祖의 추적은 단순히 김씨집단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赫居世를 시조로 하는 朴氏集團, 脫解를 시조로 하는 昔氏集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는 53대 神德王이 阿達羅王之의 遠孫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sup>15)</sup> 박씨 집단안에도 世系の 祖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8대 阿達羅王 외에도 더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석씨집단은 9대 伐休王이 즉위할때 그 집단의 시조인 脫解王之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世系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단지 석씨족은 16대 訖解王 이후 신라사회 안에서 그 세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석씨왕시대 이후 그 세계인식에 대한 자료를 달리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신라시대의 왕을 배출한 집단의 世系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世系에 대한 인식은 金庾信과 관련된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기록을 주목하기로 한다.

D (1)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至九世孫仇亥 或云仇次休 於庾信爲曾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祖武力爲新州道行軍總管…父舒玄官至蘇判(『三國史記』 40, 金庾信, 上)

(2) 大師諱審希俗姓 新金氏 其先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與武大王…(眞鏡大師碑, 『朝鮮金石總覽』 上, p. 97)

위의 자료에 따르면 金庾信은 金官加耶의 시조왕인 首露의 12세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庾信의 父 舒玄, 祖 武力, 曾祖 仇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도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오고 있다. 한걸음 더 나가 『三國遺事』의 王曆과 駕洛國記의 자료에 의하여 金庾信에서 首露王까지의 계보를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한편 신라하대 선종 9산의 제 3조가 되는 眞境大師 審希(855~923)는

15) 『三國史記』 9, 宣德王 즉위조.

그 先祖가 任那王族이고 遠祖는 興武大王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사료 D 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首璽를 시조로 하고 金庾信을 遠祖로 하는 新金氏집안에서도 그 世系를 신라말까지 계속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라말에 이르면 世系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기 위하여 다음 자료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E (1) 禪師諱慧昭 俗姓崔氏 其先漢族 冠蓋山東 隋師征遼 多沒鬪鬪 有降志而遐 配者矣 及聖唐囊括四郡 今爲全△△馬人也 父昌元在家有出家之行 母顧氏…(雙谿寺眞璽禪師大空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67)

(2) 俗姓金氏 以武烈王爲八代祖 大父周川品眞骨 位韓榮 高曾出入皆將相戶知之 父範清族降眞骨一等 曰得難 晚節追蹤趙文業 母華氏…(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74)

(3) 師諱道說 俗姓金氏 新羅國靈岩人也 其世系父母史失之 或云是太宗大王之孽孫也(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560)

(4) …△△運 俗姓金氏 鷄林人也 其先降自聖韓興於郇勿 本校百世 貽厥嘉猷 大父珣琚累官 至本國執事侍郎 父確宗歷任 至本國司兵員外 俱揚祖德 克紹家聲 母薛氏…(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p. 135~136)

(5) 大師法諱麗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遠祖出於華胄 蕃衍王城 其後隨宦西征 徙居藍浦 父△義 追攀祖德 五折遙名 母朴氏…(菩提寺 大鏡大師 玄機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31)

(6) 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實 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慮多難 偶隨萍梗 流落熊川 父章深愛雲泉 因寓富城之野(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朝鮮金石總覽』上, 126)

위의 자료들은 신라하대에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금석문 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료는 가치가 있으며 당시의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 世系나 父母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道說이 비록 金氏姓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世系나 父母를 기록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가 太宗大王의 孽孫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과연 道說의 조상들 중 누군가 그와 같은 조작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하

은 道誥이 靈岩人이고 그 계보가 확실치 않았던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가문이 한미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신라하대에 활동한 인물들 중에도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다른 예를 통하여 신라하대 世系認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金氏姓을 사용하고 있는 朗慧和尚(2), △運(4), 麗嚴(5), 利嚴(6)에 대하여 주목하기로 한다. 그중 朗慧和尚은 김씨집단세계의 祖 중 武列王을 8대조로 하고 있다. 朗慧和尚은 더 소급하여 올라가면 眞智·智證·奈勿·味鄒 등을 세계의 祖로 할 수도 있었겠으나 武烈王과의 관계만 밝힌 것이 주목된다.

한편 麗嚴(5)은 金氏姓을 사용하고 그 先祖는 왕경인이었으며 遠祖는 王城에서 번성했으나 그후 西征時에 藍浦로 徙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麗嚴의 경우 김씨집단의 世系祖가 된 사람들과 어떤 연관을 지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단지 그 역시 關智의 후손으로 그 조상들은 왕경에서 활동하다가 어떤 이유로건 藍浦에 옮겨 살게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하여 眞空大師 △運은 그 先祖가 聖韓(星漢)으로부터 나와 奈勿(邾勿)에 이르러 번성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世系の 祖를 밝히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利嚴(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利嚴은 星漢의 묘에서 그 원조들이 크게 활약했으나 신라가 다난해지자 熊川에 옮겨 산 것을 알 수 있다. △運은 王京人이고 利嚴은 熊川人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星漢(聖韓)의 후손들은 왕경에 살거나 지방으로 徙居하거나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無染, △運, 利嚴 등이 모두 김씨성을 쓰는 집단의 성원이었으나 그 세계파악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다. 즉 朗慧는 太宗 武烈王을 8대조로 하였으나 △運은 聖韓(星漢)까지 올라가나 奈勿을 세계의 祖로 하고 있으며 利嚴은 星漢을 세계의 祖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미는 별고에서 파악하겠지만 대체로 關智에 가까운 世系の 祖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골품사회 안에서 가지는 여러가지 위치가 낮아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방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해야려진다. 그러면서도 그같은 世系를 갖지 못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고 보여진다.

다음 신라인으로서 그 선조를 漢族이라고 하던 집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사료 E 1). 懸昭가 실제 漢族의 후예인지는 알 수 없으나<sup>16)</sup> 적어도 그의 世系는 隋代까지도 거슬러 올라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는 玄暉의 先祖가

大師法△玄暉 俗姓李氏 其先周朝 閔德柱史…遠祖初自聖唐遠△遠左 從軍到此 苦役忘歸 今爲全州南原人也 父諱德順…(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51)

이라는 기록에서와 같이 찾아진다. 실제로 신라인 중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世系의 祖로 받드는 집단이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같이 漢人을 先祖라고 하는 신라인집단은 그 외에도 더 있었음에 틀림없다.<sup>17)</sup> 그리고 그들의 世系는 적어도 漢인들이 신라로 들어온 때까지는 소급될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신라하대의 인물들은 선종의 승려들이었다. 그같은 선종의 승려들은 그들의 先祖·遠祖를 거론하고 있으나 진골신분을 갖지는 못했다. 그중 朗慧和尚은 그의 父 範淸이 족강하여 득난이 되었다고 하며 △運은 그의 大父가 집사시랑을 역임한 사실로 보아 6 두품 신분을 가졌던 인물일 수 있다.

그에 비해 懸昭는 全州金馬人이었고 麗嚴은 藍浦人이 되었고 利嚴은 熊川人이라 한다. 이들 先代에서 지방으로 낙향한 세력들은 그 신분이 어떠하였을까. 이들은 6 두품이기보다 郡族과 같은 지방세력으로 되어<sup>18)</sup>, 지방신분에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영암인이라 하는 道誥

16)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p. 102.

17)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70.

18) 興寧寺澄暉大師寶印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57.

도 지방출신인물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하대에 왕경인들 뿐만아니라 김씨족의 일원으로 지방에 이주하여 지방의 세력가들이 된 집단도 그들의 世系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에 비하여 신분이 떨어지는 하급 귀족신분 출신인물이거나 일반백성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하다. 먼저 하급귀족출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뽑아 보았다.

- (1) 劍君 仇文大舍之子 爲沙梁宮舍人 (『三國史記』 48, 劍君)
- (2) 孝女知恩 韓岐部百姓連權女子也 (『三國史記』 48, 孝女知恩)

위의 사료에 나오는 舍人 劍君은 沙梁宮의 大舍나 舍知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했다고 믿어진다.<sup>19)</sup> 그리고 그의 父 仇文은 관등이 大舍였다. 이러한 사실은 劍君이 五頭品, 四頭品에 해당하는 하급귀족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知恩은 분명히 한기부 백성의 딸로 되어 있다. 이들 두 사람의 世系는 父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하급귀족이나 일반백성의 세계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所出이 微하거나 부모가 微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당시 하급귀족이나 일반백성들에게도 일정한 친족집단이 있었고 가족도 있기는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이다.

#### IV. 세계인식의 구조

신라인의 세계에 대한 기록방법은 사건 당사자와 世系의 祖 사이에 누가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 (1) 十五代祖星漢王 (新羅文武王陵碑, 『朝鮮金石總覽』 上, p. 109)
- (2) 二十四代孫 (興德王陵碑斷石, 『韓國金石遺文』, p. 462)

19) 『三國史記』 39, 職官 中.

위의 기록을 남긴 비석들은 파괴되어 명확히 그 문맥을 알 수 없으나 文武王의 15代祖가 星漢王이고 누구인가의 24代孫이 興德王이 된다.<sup>20)</sup> 전자는 기록의 당사자를 중심으로 본 것이고 후자는 世系の 祖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奈勿王을 世系の 祖로 하는 집단은 모두 奈勿王의 몇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신라인들이 파악한 世系の 구조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세계집단 전체의 시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본 김씨 집단은 關智를 시조로 하고 신라초기에 왕을 배출하던 朴氏族은 赫居世를 시조로 하며<sup>21)</sup>, 뒤이어 왕을 배출하였던 昔氏族은 脫解를 그 시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金庾信의 세계에서는 加耶의 首露王이 그 시조로 되어 있다. 그밖에 왕경 6부의 祖로서 후일 李·鄭·孫·崔·裴·薛氏 성을 사용한 집단의 시조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인 漢人을 시조라고 한 世系도 있다(사료 E 1). 이로써 보면 각 姓氏集團의 시조는 그 자체가 氏族의 시조를 의미한다고 해야려진다. 이러한 氏族은 정치경제적인 기능집단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세대의 규모가 작은 친족집단적일수록 家系가 현실적인 기능집단으로 되어 있었다.<sup>22)</sup>

한편 신라인들은 씨족전체의 시조만으로 그 世系の 祖를 삼지는 않았다. 그보다 김씨집단에서 보았듯 味鄒王·奈勿王·智證王·太宗武烈王·文聖王 등이 世系の 祖로 나오고 있다. 이는 당시 같은 김씨집단 안에서도 그 世系の 祖를 누구로 삼으며 사건 당사자와는 어떤 정도의 관계에 있었느냐에 따라 그 世系の 등급, 세계집단의 범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세계의 중간시조를 누구로 하고 있고 사건당사자와는 몇 세대를 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 世系마다 그 격이 달랐던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신라시대 세계의 중간시조는 여러 단계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0) 太祖星漢王의 24대손일 가능성이 크다.

21) 『三國史記』1, 赫居世居西干 즉위조

22) 拙稿, 「新羅時代の 血族集團」, 『歷史學報』115, pp.16~37.

그리고 신라의 세계인식은 세계의 祖에서 당사자까지 그 계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예도 있다. 그러한 예로 首露에서 金庾信에 이르는 계보를 들 수 있다. 한편 세계의 祖를 알지만 역사의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그후 몇 세대의 대수만 알지 구체적인 계보가 파악이 안되는 예는 많이 있다. 또 세계의 祖가 누구인지 모르고 先(祖)·遠祖로 나오고 당사자에 이르는 世系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 세가지의 경우 대체로 당사자의 父나 祖까지 또는 드물게 曾祖까지 알 수도 있다. 그밖에 앞에서 보았듯 집안이 한미할수록 世系の 祖를 파악치 못하는 예가 있다. 아울러 기록 당사자의 父에 대한 자료가 없는 예도 있다.

이같은 세계에 대한 기록상의 차이는 대체로 해당 세계성원의 세력차이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文武王陵碑에 15代祖라 나오고 興德王碑에는 24代孫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라최고의 지위와 가문을 유지하였던 왕족의 세계파악은 그 범위가 컸던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왕족이라 하더라도 박씨집단 출신의 인물들은 그 세계파악이 김씨집단 출신의 인물들의 그것보다 못하다. 그리고 진골에서 6두품·5두품·4두품·지방세력·백성으로 신분이 내려갈수록 세계파악의 범위가 줄어드는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이해가 당시 골품제 사회체제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

## V. 세계인식의 특성

이제 신라인의 세계인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기록당사자에서 世系の 祖까지 단선적으로 직접연결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의 祖에서 당사자에 이르는 동안 세계조의 후손들 중 한 세대에 한명씩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의 세계만으로는 공동집단으로서 하나의 친족집단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다. 신라시대 친족

집단으로서 家系·氏族에 대한 문제는 별고를 통하여 다룬 바 있다.<sup>23)</sup>

둘째, 關胥와 같은 김씨집단세계의 전체 祖나 그후 세대의 중간세계의 祖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거나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전체의 조는 각기 해당씨족의 시조가 되는데 그들의 등장이나 활동모습에 신화(설화)적인 수식이 따르고 있다. 그에 비해 가문이 한미해질수록 世系祖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씨족의 시조신화 또는 설화를 갖는 집단은 지배층에 속하는 집단으로 그 시조의 후손들이 하나의 단계친족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中間祖는 가계의 시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같은 가계는 세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친족집단으로서의 응집력이나 정치·사회적 기능이 달랐다.

세째, 세계는 父系男子들을 통하여 연결되었다. 세계는 당사자의 父·祖·曾祖를 통하여 소급되어 세계전체의 시조, 중간조에 이르게 됨을 뜻한다. 물론 중간의 代數만 아는 경우나 그것을 모르고 막연히 先祖·遠祖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잘 알 수 없으나 그것도 틀림없이 남자를 통하여 연결되는 세계였다.

이와 관련시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계보가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按 換白寺柱貼注脚載 慶州戶長巨川母阿之女·女母明珠女 女母積利女之子 廣學大德·大緣三重古名善會 昆季二人 皆投神印宗(「二國遺事」5, 明朗神印)

위의 기록은 지금까지 신라 모계제설, 모계계승설의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 표를 작성하여 보았다.

積利女——明珠女—阿之女—巨川(慶州戶長)  
           ├—廣學  
           └—大緣

23) 拙稿, 앞의 논문, 1987, pp. 1~42.

그런데 필자는 위의 사료가 작성된 이유는 巨川의 世系과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sup>24)</sup> 그것은 다름아니라 廣學·大緣이 고려초에 왕건을 따라 상경하여 隋駕焚修하였던 인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알고 있던 巨川이 자신과 廣學·大緣의 관계를 突白寺柱貼에 각주로서 기록했던 것을 뜻한다. 즉 위의 기록은 친족계승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巨川은 그의 母의 母가 되는 明珠女와 남매지간이었던 廣學·大緣에 대하여 생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廣學·大緣이 巨川의 祖父世代에 해당하기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위의 계보는 世系라기보다 巨川과 廣學·大緣 사이의 관계만 표시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네째, 앞에서 정리하여온 신라인의 世系는 왕위계승의 계보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世系가 혈연·친족의 계승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왕위계승의 계보는 지위를 이어 나가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혈연·친족의 성원권 결정원리와 정치적 지위의 계승은 별개의 것으로 일단 다루어야 한다. 단지 왕위계승도 왕을 배출하던 친족집단의 지위계승원리를 따른 것으로 친족성원권의 계승과 일치하는 면과 관계가 깊기는 하다.<sup>25)</sup> 그러나 왕위계승의 원리에는 권력구조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변수 등 친족계승과는 다른 주요한 측면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에서 보아온 바에 의하면 신라인의 世系는 父系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당사자에서 소급되는 父·祖·曾祖·高祖 등의 계보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惠恭王대에 처음 시행했다고 하는 五廟制(사료 C 1)도 실제로는 父系의 계통을 통하여 味鄒王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五廟制를 시행한 惠恭王도 그의 父·祖 등을 통해 味鄒王까지 이어지는 父系의 世系를 증시하였고, 그것의 의

24) 金毅圭, 「新羅母系制社會說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23, 1979, pp. 55~56.

25) 그 중에는 中古, 中代의 왕위계승자료가 당시 소가계의 계승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미를 지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世系가 꼭 장자만을 통하여 그 조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金庾信의 曾祖인 武力이 高祖인 仇亥의 세아들 중 막내였던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정한 世系祖의 여러 갈래로 갈린 후손들이 공동 세계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惠恭王이 五廟制를 설치할때 父·祖만을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사건 당사자와 동일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던 집단의 폭은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여섯째, 世系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도 이미 정리한 바 있지만<sup>26)</sup>, 世系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사회 등 여러면에서 실제 법적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해가 얽혀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세계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27)</sup>이 에 世系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점을 상기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신라사회에서 가지는 世系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 친족성원권 부여의 기준이 되고 정치적 지위세습의 근거가 되며 재산상속의 근거도 된다.<sup>28)</sup> 그밖에 제사참여, 거주지 결정의 기준도 되었다고 해야려진다. 따라서 世系에 대한 이해는 신라사회의 기본구조를 파헤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앞에서 신라인의 世系認識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신라인의 세계인식의 실재를 밝혔고 그 인식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하여 정

26) 拙著, 앞의 책, 1980, pp. 25~38.

27) 味鄒王과 奈勿王 사이에도 세대축소현상이 생겼다고 믿어진다.

28) 실제로 父系制와 母系制社會에서 世系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라 신분·재산·정치적 지위가 결정되었다고 믿어진다.

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든 신라인이 세계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오히려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始祖에서부터의 世系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까운 친족에 대한 이해 정도에 그쳤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신분이 낮을수록, 방계화된 왕족일수록 세계인식이 잘 안되었으며 설령 그 세계를 파악하고는 있었더라도 출신을 나타낼 뿐 실제 정치·경제·신분적인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신분이 높을수록 세계인식이 잘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것도 왕족의 경우 보다 세계인식이 잘 되었음에 틀림없다. 신분이 높거나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세계에 대한 인식의 의미는 컸다. 그것은 신분의 세습, 정치적 지위의 계승, 경제적인 상속 등의 기준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하튼 친족체계의 기초가 된 세계인식은 골품제 사회하의 신라인에게 있어 신분·정치·경제 등 여러 면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 틀림없다. 그것도 부계의 세계인식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신라사회가 기본적으로는 부계제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